

# ‘다시 뛰는 은빛 청년’ 어르신 대축제

도지사 표창 김기복(간성읍분회장) · 김봉영(죽왕면분회 총무) · 김형산(토성면분회장) · 정래홍(현내면분회장)

## 20일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기관사회단체장 및 65세 이상 어르신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나라발전과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의 날은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다시 뛰는 은빛 축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1부 기념식, 2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는 간성팀에서 에어로빅을, 반암리팀에서 기체조를, 현내팀에서 민요를 각각 발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1부 기념식에서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노인과 단체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도지사 표창장 및 표창패는 김기복 간성읍분회장, 김봉영 죽왕면분회 총무, 김형산 토성면분회장, 정래홍 현내면분회장 등이 수상했다.

군수 표창장은 전문갑 간성읍분회 동호1리회장, 이석승 죽왕면분회 문암1리회장, 지연희 현내면분회 부회장, 임대식 거진읍분회 거진11리회장, 함은희 고성노인복지센터 대표 등이 수상했다.

노인회장 감사패는 현담 건봉사포교당 주지스님, 남영자 고성군지회 전 사무국장, 대순진리회 토성수련장 등이 수상했다.

2부 공연에서는 유라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우리가락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았다.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기관사회단체장 및 65세 이상 어르신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2사단 장병, 경동대학교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행사장 및 중식장소 준비와 중식서빙 및 뒷정리 등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원광연 기자

## 7호선 국도 2곳 고정식무인단속 실시

공현진 청파추어탕 앞 · 천진초교 앞 ... 제한속도 80km/h, 25일부터 단속

고성경찰서는 사고 다발구간인 국도 7호선에서의 안전한 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개소에서 고정식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국도 7호선 공

현진 청파추어탕 앞에서 속초방면 △국도 7호선 천진초교 앞에서 간성방향 등 2곳이다.

최고제한속도는 80km/h이며 단속 개시일은 25일 0시부터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위험성, 도

로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된 단속 장소”라며 “미리 알려드리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의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북진연대 ‘발바닥훈련’

무박2일 100km 행군 앞두고 체력단련

육군 22사단 북진연대 장병들이 발바닥 단련의 일환으로 맨발 뒹굴음을 하고 있다.

넘는 경사지를 거뜰히 올라갈 수 있는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매주 20~40km의 급속행군을 실시함으로써 장병들의 행군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북진연대 민병훈 상병(23세)은 “예전에 비해 체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것 같다”며 “100km 지속행군 뿐 아니라 어떤 임무가

기든 ‘물집’이다. 이에 연대는 물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발바닥 단련’을 시행하고 있다.

연대는 아침 점호 및 오후 체력단련 때 연병장에서 맨발구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시간에는 군장을 착용하거나 인접 전우를 업고 급속행군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바닥 단련을 하고 있다.

또한 순환식 체력단련을 통해 장애물 극복능력과 강한 체력을 배양하는 한편, 산악구보를 통해 30도가

주어지더라도 완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북진연대는 이와 같이 체계적인 체력단련을 바탕으로 11월 중순, 무박 2일간의 100km 지속행군을 실시함으로써 자신감과 사기, 단결력 배양을 통해 부대 전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육군 22사단 북진연대 장병들이 발바닥 단련의 일환으로 맨발 뒹굴음을 하고 있다.

## “급식 납품 지역생산물 이용하자”

고성지역 자활센터 대표자 간담회 ... “전향적인 사업진행 필요”

고성지역 자활센터 대표자 간담회가 지난 19일 자활센터 대표자와 고성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발전적 모델을 만들고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활센터 및 사업단, 공동체의 현황설명과 의견 교환 및 청취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자들은 각 개별 사업의 아이টে이로 사업적인 부분의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교 급식 납품과 고성무료 급식 납품은 지역생산물을 이용해 지역소비를 촉진하자는 의견



지난 19일 고성지역 자활센터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 및 부서간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